탄소 중립 톡·톡·행·정 '눈길'

흑석산 '1회용 쓰레기'는 없다

해남군, 7월부터 1회용품 반입·반출 금지…다회용기 무료 제공

오는 7월부터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사진〉에 1회용품 반입과 반출이 금지된다.

해남군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목표 제로화 달성을 위한 해남형 ESG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회용 쓰레기 배출 없는 휴양림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휴양림 이용자에 계도기간을 갖고 사전 홍보를 실시했으며, 6월까지 2차 계도기간을 두고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는 다회용 식기를 무료로 비치하고 이용객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1회용품 반입·배출 없는 프로젝트로 1년 최대 20 t 의 쓰레기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계곡면 흑석산(해발 653m)에 자리한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 50만㎡의 규모에 휴양림(9동)과 숲속야영장(13동), 유아숲체험원, 치유센터 및 치유의 숲 등이 조성됐다. 전문산림치유지도사가 상주, 향기와 경관, 음이온 등 산림치유요소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숲을 활용한 자연치유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과 청결 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쾌적한 객실 환경 정비에 더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집집마다 난방비 낭비는 없다

목포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737대 추가 지원…23일부터 접수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사진〉 보급사업'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목포시는 지난 3월 '제1차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763대를 지원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아 저녹스보일러 737대(저소득층 6대, 일반 731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저녹스보일러 1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 일반 1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자다.

신청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구매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내에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신안 '퍼플섬' 교통 체증 불편하셨죠?

우회도로 개통…대형버스 정차 구간·LED 보행등 등 조성

신안군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안좌·반월·박지도 '퍼플섬'의 교통체증 해소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회도로〈사진〉를 조성하고 최근 개통식을 개최했다.

퍼플섬은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으로 홍콩, 독일, 미국 등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지난 2021년 12월 스페인에서 개최한 세계 75개국 174개 마을 중 유엔(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됐다.

이에 군은 매 주마다 관광객이 3000~5000명까지 퍼플섬을 방문하면서 밀려드는 차량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도로 연장 2.0㎞, 폭 4.0~6.0m 대형버스 정차 구간 5개소를 조성했다.

또한, Led 보행등 45개와 지주식 가로등 2개소 그리고 해안도로를 따라 보라색 배롱나무(자금령) 3만 2000주를 식재하여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인정한 최고의 관광명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 관광 도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찾아가는 코로나 접종 눈길

완도군, 오늘 청산 여서도 등

방역당국이 코로나 19로 인한 고령층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의료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팀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통해 4차 백신을 접종할 주민은 총 370여 명으로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8개 무의 도서의 주민 441명이 접종했으며 올해는 지난 3일 모도 보건진료소에서 38명, 11일 청산 보건지소에서 122명이 4차 백신을 접종했다. 18일과 19일에는 청산 여서도와 군외 사후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석 완도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는 도서 주민의 접근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스포티움 천연잔디 구장 개방

영광군,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말마다

영광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다양성 확보와 천연잔디구장의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영광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사진〉 개방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체육회 및 축구협회와 협약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 중 총 14회(주말) 천연잔디 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다. 영광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은 영광군 대표 종합체육시설로 우수한 체육시설로 평가받는다. 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쓰레기 처리, 시설 안전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스포츠산업과(061-350-52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축산농가 돕자" 무안군 조사료 수확 박차

2174ha 규모

무안군이 양질의 사료작물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은 값비싼 수입사료 대체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역 조사료 경영체 23개 법인에서 2174ha 규모의 조사료를 수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과 사일리지 제조비로 39억 9000만원을 지원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영체법인에 조사료 수확장비인 트랙터, 결속기, 예취기, 집초기 구입 등에 9억 9000만원을 지원해 기계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량 증대에 힘쓰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